

2017년 5월 29일, 성산읍 고성리 고성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  
고순애(여, 1933년생, 성산읍 고성리)

- 줄거리: 밭에 일 나가면서 도깨비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자 도깨비가 우장을 써서 나와 집에 불을 지른 이야기이다.

**[제보자]** 옛날 오조리엔 헌 부락 요기. 거기 나가 어린 때 들은 말이주게.

조팟디 조 불리레 가멍 음식을 헹 대접 안 해동 가전. 생각허나네.

“아이고 밥 안 헨 와졌구나.”

헨. 돌아왕 보난, 벌써 도체비가 우장 쌍 나와네. 저 뭐이니 집까지 불 붙겄어렌.

거난 막 잘못햇우덴 빌언.

“들어가지만 나 앞으로 걸 안 현. 대접 잘 헤드리쿠덴.”

햇우덴. 그런 말 들어낫주게.

거 무시거 말이나 어린 때 들은 말 것도. 걸 골안게. 게난 이거 도체비.

- 핵심어 : 도체비, 우장, 불, 밥, 대접, 도깨비